

한반도 인구에 대한 서구의 기록과 연구물 고찰(1)*

- 1800년대 중반부터 대한제국기까지 -

이 정 섭**

A Review of Korean Population Geography Written by Westerners(1): from the mid 1800s to the Great Han Empire*

Lee Chung Sup**

요약 : 이 연구는 1800년대 중반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시간 범위에서 한반도를 관찰한 여러 서구인들의 기록들을 인구 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서구인들에 의한 기록 중에서 한반도 인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약 20여 편의 문헌들을 찾았고, 둘째 해당 문헌에서 한반도 인구에 관련된 서술들을 확인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한반도 전체 인구수, 지역별 인구수, 분포, 밀도, 그리고 이동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그들이 인구를 매개로 한반도와 그 위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해석하였다.

주요어 : 개화기, 대한제국기, 서구인의 기록, 인구

Abstract : This study reviews Korean population geographic documents and description by Westerners, from the mid 1800s to the Great Han Empi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 search and find about 20 literatures including the population contents. Second I trace their narration related Korean population, and confirm the key themes; the total population in national and local scale, distribution, density and migration. Finally I try to interpret the Westerners' recognition and perspective on Korean through their representing and depicting the Korean population.

Key Words : enlightenment, the Great Han Empire, records written by westerners, population.

1. 서론

인구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을 설명하고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리학에 있어서 인구에 대한 관심은 동서양의 여러 지리지, 판적(版籍) 통계와 같은 기록들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인구지리학은 토지의 기술(記述)과 해당 사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해왔다. 한주성(2015)은 근대 지리학 형성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를 '대(大)인구지리학 시기'로 제시하고, 이때의 인구지리학은 자연지리학, 문화지리학과 함께 지리학을 구성하는 3대 분과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런데 대인구지리학 시기에 한반도는 개화와 개항, 동학농민운동, 청일 및 러일전쟁, 국권침탈과 일제강점 그리고 해방,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적 격변의 궤적을 거쳐 왔고, 안타깝게도 이

때의 한반도에 대한 인구지리학 연구를 주도한 주체는 우리가 아닌 '외부인'들이었다. 이처럼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종전까지 한반도에 대한 인구지리학적 기술과 연구가 타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여러 이유들 중에서 우선 인구자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반도의 전통적인 인구자료들로서 1800년대 후반까지 조선의 호구총수(戶口總數), 일성록(日省錄) 등이 있었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호구조사가 초보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정확성과 신뢰도를 의심받았다. 따라서 일제가 작성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간이국세조사' 등이 주된 인구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연장선에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관변 통계자료들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한반도 강점과 통치의 선전, 찬양을 위한 것들이었고, 이에 대응되는 '우리', '내부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은 사전에 검열되고 삭제되었던 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다(최재성, 2013).

* 이 연구는 필자의 2016년 한국지역지리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yisup@gnu.ac.kr)

아울러 맬서스의 인구론에서부터 과잉인구, 인구 성장, 인구변천, 국가 경제성장과 인구 간 상호관계,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인구가동 등으로 이어진 인구지리학의 학문적 패러다임들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도 관련이 있다. 실례로 맬서스의 인구론은 193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우리말로 번역되어 한반도에 소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 과잉인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의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당시를 서술, 묘사한 서구인의 기록은 현 시점 한반도의 인구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인구지리학적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연구는 18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대인구학의 시대라는 시간적 범위에서 첫째 한반도에 대한 서구인들이 작성한 한반도 인구 관련 기록물과 연구들을 발굴하고, 둘째 주요 연구대상, 주제 및 구체적 서술 내용들을 분석하고, 셋째 당시 그들이 어떻게 한반도와 그 위에서 펼쳐진 삶의 모습들을 이해, 인식,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우선 조선 후기, 개항,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까지에 먼저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연속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2. 한반도 인구에 관한 서구의 기록과 기록자

이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한반도에 관한 어떤 인구지리학적 연구들이 존재했는지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대인구지리학 시기의 인구지리학은 현재 인구지리학처럼 계통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확고한 체계나 지위를 구성했던 것이 아니다.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한반도 인구에 대한 서구인의 기록과 서술은 여행기, 풍물기, 탐험기, 일기 또는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거나 지리지의 한 장 또는 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구학 혹은 인구지리학

적 관점에서 완결성, 일관성을 갖춘 것들이 아니다. 아울러 기록·서술한 주제들의 직업, 학문적 배경도 다수의 지리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선교사, 외교관, 군인, 상인, 탐험·여행가, 민속·인류학자 등으로 상당히 다양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의 기록·서술자들이 각기 다른 목적과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은 해당 시기의 관련 기록과 연구물들을 발굴하여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1900년 러시아 재무성이 발간한 『КОРЕИ』와 1945년 Lautensach의 『Korea』, 두 편 지리지의 인구 관련 내용, 그리고 인용된 선행 기록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하나 찾아 나갔다. 그리고 개항부터 조선의 망국 시기까지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에 관한 김학준(2009a, b, c)의 문헌조사 연구에 나타난 여러 기록물에 대해서, 원문을 archive.org 등을 통해서 열람하고, 인구에 관한 서술이 있는 것들을 추출하였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근세동아시아서양어자료총서’, 우리말로 번역된 한말 외국인 기록 등에서도 여러 서지들을 찾았고,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선정한 기록물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해당 기록물들을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의 이전과 이후 시기 그리고 1897년 대한제국 성립에서 1910년 경술국치까지 세 시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1910년 이후에 출판되었지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인구를 기록한 문헌 일부도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기록물들 저자의 생애, 활동 및 저술의 목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¹⁾.

1) 개항 이전(1876년 이전)

개항 이전 한반도의 인구에 대한 기록은 1849년 ‘파리 외방전교회(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소속 선교사 Daveluy(1818~1866)가 작성한 『Nouv. Ann. Des Voyages(신여행연감)』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기록물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1900년 러시아 재무성이 작성한 한국지의 인구편에 가장 앞부분에 인용되었는데, 1763년 조선의 인구 7,342,361명을 기록

표 1. 연구대상 문헌 목록

출판년	저자	주요 연구물	비고
1849	Daveluy(프랑스)	『Nouv. Ann. Des Voyages』	개항이전
1874	Dallet(프랑스)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1880	Oppert(독일)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Corea』	
1882	Griffis(미국)	『Corea: the Hermit Nation』	개화기
1886	Lowell(미국)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1887	Bishop(영국)	『Korea and Her Neighbours』	
1888	Carles(영국)	『Life in Corea』	
1889	Vebel(러시아)	『Poezdka v Koreiu v 1889』	
1891	Ross(스코틀랜드)	『History of Corea』	
1892	Allen(미국)	『A True Story of Korea』	
1892	Gilmore(미국)	『Korea from its Capital』	
1894	Curzon(영국)	『Problems of the Far East』	
1894	Cavendish(영국)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1895	Savage-Landor(영국)	『Corea or Cho-sen』	
1889	Allen(미국)	『Korean Tales』	대한제국기
1900	러시아 재무성	『КОРЕЯ』	
1906	Hulbert(미국)	『The Passing of Korea』	
1908	Underwood(미국)	『The Call of Korea』	
1909	Gale(미국)	『Transition in Korea』	
1909	Seroshevskii(1909)	『Корея』	
1976	Wunsch(독일)	『Arzt in Ostasien』	
1936	이훈구(조선/미국)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일제강점기
1945	Lautensach(독일)	『Korea』	

하고 있다. 파리 외방전교회는 1831년 조선 내의 교구를 임의로 설정하였고, 1837년 조선 교구장인 Imbert를 포함한 첫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왔다. Daveluy는 1841년 김대건 신부와 함께 강경 황산포를 통해 들어왔는데, 천주교 전교활동과 배론에 신학교를 건설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다가, 1866년 체포되어 참수되었다. Daveluy는 조선에서 활동한 20여 년 동안 여러 자료들을 작성하여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냈다. 또 다른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였던 Dallet(1829~1878)는 1874년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조선천주교회사)』에서 조선의 호구는 1,560,774호, 인구는 6,617,997명으로 기록하였다. Dallet의 책은 천주교가 조선에 수용되고 동시에 박해를 받았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고, 동시에 그의 책 서론에서 조선 지리, 역사, 정부조직, 사법제도, 사회신분, 가족제도, 관습 등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Dallet는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한 적이 없고, 그 활동의 대부분은 프랑스에서 외방전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 기록과 서술의 기초는 Daveluy를 비롯하여 조선에서 직접 전교활동을 했던 신부들이 본부에 보낸 기록과 함께 중국에 기반을 두고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예수교 소속 신부 Régis, Du Halde 등의 조선에 대한 저술에 기초한 것이다.

선교사 이외에 개항 전 조선의 인구를 기록한 사람은 유대계 독일인 Oppert(1832~1903)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남연군의 농묘를 도굴한 인물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독일에서 그는 여행가이자

인종학자(Ethnologue)로 알려져 있다(신복룡·장우영, 2000). Oppert는 1866년에 두 차례, 그리고 1868년에 추가로 조선에 온 경력이 있고, 독일로 돌아간 이후 1880년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Corea(금단의 나라 조선)』를 썼다. 이 책의 앞머리 헌사(獻辭)에는 ‘조선의 지리와 인종학 연구의 증진에 커다란 도움을 베푸신 브라질의 황제 페하 돈 페드로 2세에게 삼가 이 책을 드립니다.’로 기록되어 있고, 모두 9개 장 중으로 구성된 해당 책 중에서 앞의 세 개 장은 조선의 인종과 지리, 정치 제도, 역사, 풍습, 언어와 문자,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지리지로도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제1장에서 조선의 인구에 대해 그는 상당한 서술과 자신의 의견을 수록하였다.

2) 개화기(1876~1897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1882년부터 조선은 미국, 독일,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구열강과의 수호 통상조약을 연이어 체결하였고, 해당 국가들에서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가진 이들이 조선을 찾고 그 경험과 감상 등을 책으로 발간했다.

Griffis(1843~1928)는 1882년 조선이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5개월 후에 『Corea; the Hermit Nation(은자의 나라)』를 출판하였다. 이미 1870년대 일본의 푸쿠이에서 과학 교사로 근무하였고, 다이가쿠난코(大學南校, 도쿄제국대학의 전신)에서 화학 등을 상당 기간 강의했다. 이런 그의 배경과 경험에서 일본서기, 고사기 등에 기초하여 조선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고, 따라서 그의 서술에는 일본적 관점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영어권 독자들에서 처음 조선을 소개한 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9쇄까지 인쇄되었고, 이후 서양인들이 조선에 대하여 기록한 출판물들에서 적지 않게 인용되었다.

또 다른 미국인 Lowell(1855~1916)은 1870년대 일본문화에 매료되어 상당 기간 일본에 체류하였고, 1883년 조선 정부가 미국으로 10명의 보빙사(報聘使)를 파견할 때 이들을 일본에서 미국, 다시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여정까지 직접 인솔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것을 인연으로 고종의

초청으로 188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조선을 방문하였고,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초로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을 출간하였다.

영국 왕립지리학회 최초 여성 회원인 Bishop(1831~1904)은 1894년 조선에 처음 입국하여 그 뒤 3년 동안 몇 차례 조선과 중국을 더 답사하였고, 이를 기초로 영국으로 귀국한 후 1897년 『Korea and Her Neighbours(조선과 이웃나라들)』를 간행하였다. 그녀의 책에서 인구에 대한 기록은 짧지만, 19세기 말 조선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서술내용을 담았다.

영국의 외교관인 Carles(1848~1929)은 1883년 조선과 영국 사이의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처음 방문하였고, 1884년에는 제물포의 부영사로 근무하는 등 총 18개월 동안 조선에서 체류하였다. 이후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후 은퇴하여서는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의 『Life in Corea(한국에서의 생활)』은 1888년 발간되었고, 총 20개 장에 걸쳐 당시 조선을 기록하였는데, 책 부록에 1884년 10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직접 다녀온 50개 남짓 도시 명칭과 각 도시의 호구수를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출생의 목사인 Ross(1842~1915)는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에 1876년 평안도의주 출신의 조선인 한약상 이용찬을 만나서 그로부터 조선어를 습득하였고, 서양인이 쓴 최초의 조선어 학습서인 『Corean Primer』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1891년 중국의 사료에 기초한 『History of Corea(한국의 역사)』를 발간하였는데, 인구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다. Ross는 조선과 만주의 국경지대에 있는 한인촌을 방문하였지만, 조선 국내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제국 참모본부 소속 군인이었던 Vebel은 1889년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러 국경에서부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를 거쳐 서울로 들어왔다. 다만, 그 밖의 활동과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1884년부터 1905년까지 의사이자 외교관, 선교사로 활동했던 Allen(1858~1932)은 1883년부터

터 20년간 작성한 일기를 비롯하여, 1892년 『A True Story of Korea(진정한 한국 이야기)』, 1889년 『Korean Tales(한국의 민담)』 등 한반도에 관한 여러 책들을 발간하였다.

그 밖에도 미국 출신의 목사이자 1886년에서 1889년까지 육영공원(育英公院)의 교사였던 Gilmore(1857~?)는 1892년 『Korea from its Capital(서울에서 본 한국)』, 영국군 장교 출신의 탐험·여행가이자 영국 왕립지리학회 특별회원이었던 Cavendish(1859~1943)가 1894년 출간한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백두산으로 가는 길)』, 영국의 화가, 여행가 그리고 인류학자로도 평가되는 Savage-Landor(1865~1924)의 1895년의 『Corea or Cho-sen(한국 또는 조선)』 등에도 간략하게 당시 한반도의 인구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의 외교관이자 정치가였던 Curzon(1859~1925)은 영국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에서 조선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언론에 기고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1894년 『Problems of the Far East(극동의 문제들)』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에 간략하게 조선의 인구를 수록하였다.

3) 대한제국기(1897~1910년)

미국의 교육자이자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Hulbert(1863~1945)는 1906년 『The Passing of Korea(대한제국 멸망사)』를 발간하였고, 선교사 Underwood(1859~1916)와 Gale(1863~1937)은 각각 1908년과 1909년에 『The Call of Korea』, 『Transition in Korea(전환기의 한국)』을 발간하였다. 그런데 Hulbert의 책에서는 조선 중후기의 인구를 기록하였고, 대한제국 시기의 인구에 관한 기록은 Underwood와 Gale의 책에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한편 제정 러시아의 재무성이 발행한 지리지 『КОРЕИ』에는 인구조사방법, 선행 서구인들이 한반도 인구를 기록한 내용들, 1897년의 호구조사 및 인구밀도 등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수록되어 있다. 러시아의 작가이자 민속학자인 Seroshevskii(1858~1945)는 러시아 황실탐사대의 일원으로 1902년에서 1903년까지 일본, 한국, 중국 등을 관찰하고, 한국에 대해서 1909년 『Корея』를 출간하였다.

4) Lautensach 그리고 이훈구

한편 우리의 국권이 침탈된 1910년 이후에 발간되었지만, 이전 시점의 한반도 인구에 대한 기록을 수록한 책으로 1945년 Lautensach의 『Korea』를 빼놓을 수는 없다. 특히 이 지리지에는 한반도의 인구에 대해서 조선시대의 것과 일제강점기의 것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전자에서는 한국인 농업경제학자 이훈구가 1936년 영어로 저술한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을 상당부분 인용하였다.

이훈구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하면, 1896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여 수원농림학교와 동경제국대학교 농학부를 거쳐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 농대 석사, 위스컨신주립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농무성 농업경제국에서 촉탁으로 근무한 후, 중국 남경의 금릉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강의했고, 1930년대에는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당시 숭실전문학교의 교장은 선교사 George Shannon McCune(1878~1941)이었다. 한국 이름 윤산온(尹山溫)이었던 McCune의 두 아들, 장남 George McAfee McCune(1908~1948)은 미국 내 한국학 연구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인물이고, 차남 Shannon Boyd-bailey McCune(1913~1993)은 Clark 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리학자이다.

1936년 이훈구의 저술은 미국의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의 재정지원과 미국 지리협회의 지도 아래에서 조선의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보고서인데, 총 12장 중 첫 번째 장은 기후, 지질, 토양, 천연자원, 공업과 상업 조건, 교통과 통신 그리고 인구, 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국지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1937년 Shannon은 서평을 통해 ‘한국 지리에 관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고, ..., 지리적 경관에 관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훈구의 한반도 인구에 대한 서술도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1404년부터 1904년까지 조선의 인구 성장에 대한 시계열적으로 수록하였고, 또한 국권 침탈 이후 시기에 대해서도 인구성장, 외국인 인구 변화, 인구밀도와 분포, 성비와 혼인율 등 상세한 내용과 분석을 이루어 내었다.

3. 전체 인구수 기록

이상의 기록물들, 즉 19세기 중반에서 대한제국 기까지 서구인들이 남긴 한반도 인구에 대한 기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인구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수를 단지 한두 줄 정도에 기록한 것에서부터 한 절로 구성된 수준까지 그 서술의 양과 질도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제정되면서 우리의 인구자료가 그 이전 구식 호적과 이후 신식 호적으로 구분되기에(정치영, 2011), 서구인들이 기록한 한반도 전체 인구수에 대한 내용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1897년 이전의 기록

Daveluy(1849)는 1763년 조선의 인구는 7,342,361 명으로 기록하였고, Dallet(1874)는 30년 전의 조선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844년 가구 172만 호, 인구수 750만명 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때 ‘공식통계’에 대해서, 김학준(2009a)은 1840년의 ‘헌종실록’에 호구수 1,560,774호, 인구수 6,617,977 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지만, 실록이 국왕 사후에 발간되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다른 자료, 아마도 ‘일성록’에 근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Oppert(1880)는 조선 정부가 산출한 통계에는 인구를 750~800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은 1,500~1,600만 이상일 것으로 추계하였다.

한편, Griffis(1882)는 개항 이후 영어권에서 첫 출간된 그의 책에서 자신의 견해로는 조선의 인구는 최소 1,200만 이상일 것이지만, 어느 일본 신문사(Hochi Shimlun)의 서울 특파원 기록에 따르면 조선 정부의 1881년 센서스 결과는 3,480,911 호와 16,227,855명이라고 적었다. 1881년의 센서스 결과에 대해서 Allen(1892)과 Vebel(1889)도 똑같이 인용했지만, Vebel은 수치를 믿지 않았고, 그보다 상당히 더 많은 인구가 한반도에 거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Lowell(1886)은 일본의 신문들을 출처로 약 1,200만 명, Bishop(1887)은 1,200만 내지 1,300만 명의 인구를 추정해서 기록하였고, Cavendish(1894)는 약 1,400만 명이며 이중

100만 명이 군인(fighting men)이라고 적고 있다.

Ross(1879)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조선의 8개 도별 도시(cities), 면(cantons), 가구(families, Hoo), 군인(soldiers, Ding)의 수를 ‘Census’라는 제목의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Hoo’는 호(戶), ‘Ding’은 정(丁)의 중국어 발음으로 보이는데, 전체 호의 수는 1,720,300, 정(丁)의 수는 1,221,862로 적고, 이를 기초로 조선 전체의 인구는 1,400~1,500만 명 정도로 추계하였다.

Curzon(1894)은 조선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신 그의 책에는 앞서 서구에서 발간된 여러 문헌과 자료를 인용한 인구수가 수록되어 있다. Daveluy, Dallet, Oppert, Griffis, Varat 등이 제시한 수치 그리고 1884년 조선의 센서스에서 기록된 한반도의 인구수는 최소 700만에서 최대 2,800만 명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최대 2,800만 명이라는 인구수는 1884년 조선 정부의 센서스에 따른 것이지만, 극히 의심스러운(obviously supposititious) 것이라고 평가했다. Curzon이 지적한 1884년의 인구센서스는 1885년 박문국(博文局)이 발간한 ‘만국정표(萬國政表)’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1881년 호구조사 결과가 1,60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거의 배증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한 점이 신뢰도를 의심하는 근거였다.

러시아 재무성이 간행한 『КОРЕИ』에는 제7장 한국의 주민 중 한 절에 걸쳐 인구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1897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였다. 이중 1897년 이전의 한반도 인구에 관한 서술은 Curzon과 마찬가지로 선행의 인구 기록들을 인용, 나열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주목할 인용은 1884년 조선을 방문했던 독일 지리학자 Gottsche의 보고서

표 2. Gottsch의 한반도 인구수에 대한 기록

연도	가구(호)	인구(명)
1804	1,680,000	7,150,000
1852	1,604,000	6,860,000
1861	1,447,000	6,750,000
1883	2,350,000	10,520,000

출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84, 국역 한국지, p.266.

‘Ueber Land und Leute in Korea(Verhandlungen der Gesellschaft für Erdkunde zu Berlin, XIII, pp.245-262)’에 수록된 시계열적인 인구자료이다.

2) 1897년 이후의 기록

러시아 재무성의 『КОРЕИ』은 1887년의 호구조사에 대해서 ‘정부는 각 도의 행정관청이 세금 때문에 실시하는 조사와는 별도로 유럽제국에서 실시하는 인구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라고 평가했고, 출처는 ‘The Independent’, 즉 ‘독립신문’이었다. 그런데 ‘독립신문은 부와 군의 인구수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발표하였는데, 웬일인지 갑자기 이를 계속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에는 있는 부와 군(이것도 모두는 아니지만)의 숫자만이 알려져 있다. 이 수치는 이 책의 부록에 게재되어 있다.’라고 서술하면서, 부와 군 행정·공간 단위가 아닌 서울을 포함한 14개 도의 호구수, 남녀 인구수를 수록하였는데, 전국의 전체 가호수는 1,332,501호, 전체 인구수는 5,198,248명(남자 2,967,687명, 여자 2,328,481명)이며 가호당 인구는 약 3명이었다.

Underwood(1908)는 대한제국의 내부(内部,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가 작성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1904년 가호수는 1,893,062호, 인구수는 9,465,310명이고 적고 있지만, 자신의 견해는 약 1,200만 명이 적절한 추정일 것이라고 서술하였고, Gale(1909)은 대한제국 당국의 자료는 1,000만 명 미만이라고 하지만, 1907년 ‘일본연감(Japan Year Book)’에는 약 1,40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함께 서술하였다.

한편 이훈구(1936)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근거하여 1404년부터 1904년까지에서 8개 시점의 호구와 인구수를 표로 정리하였는데, 1904년의 전체 호구수는 1,420,299호, 인구수는 5,665,128명이었다.

3) 인구밀도

한반도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당시에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존재했다. 따라서 얼마만큼

의 한반도 전체 인구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 인구 밀도 값은 달라지는데, 이들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높고 낮음에 대한 평가는 양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다만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는 Hulbert는 한반도의 전체 면적이 아닌 경작이 면적에 대한 인구비가 주변의 중국, 일본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이 때문에 충분한 자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색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다.

4. 지역별 인구수 기록 그리고 인구분포, 이동

서구인들이 기록한 지역별 인구에서 가장 널리 언급된 지역은 서울이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조선에 입국하였을 때, 가장 처음 또는 마지막 목적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자세한 지역별 인구통계가 없거나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여행, 답사, 탐험 중에 직접 관찰한 지역이 제한적인 것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1860년대 조선에 들어왔던 Oppert는 서울의 인구를 약 10~15만 명으로 기록하였고, 1880년대의 Lowell,은 25만 명 정도로, Bishop은 도성 내에 144,636명과 도성 밖에 75,189명이라는 1897년 호구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1890년대 Gilmore는 25~40만 명으로 적고 있다. 물론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 대한 기록들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그 대부분은 부산, 제물포, 원산 등 개항 지역 및 각 저자들이 직접 답사한 지역들이다. Carles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답사한 50여 곳에 대한 기록을 부록에 실고 있다.

한편, 한반도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Carles는 ‘남쪽 저지대(lowlands)의 인구밀도가 북쪽 산악지대보다 높다.’, 러시아의 『КОРЕИ』에는 ‘한국을 여행한 많은 사람들은 북부에 비해서 남부와 중부에 인구가 더 많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장 인구가 조밀한 지역은 해안지대이다.’로 서술하였고, Seroshevskii는 ‘한반도는 중부지역의 인구밀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남부지역이다. 북쪽으로 갈수록 인구밀도가 낮아지는데, 서쪽보다는 동쪽이 밀도가 높은 편이다.’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상당수 기록들은 경작지와 연계해서 인

316 APPENDIX

APPENDIX

ITINERARY OF ROUTE DESCRIBED IN CHAPTERS VII-XVII

Date.	Name of Place.	Distance.	Number of Houses.
1884		Li.	
Sept. 27	Ko yang	40	280
	Pha ju	40	200
28	Chang dan	40	400
	Kai song	40	7000
29	Teuk tjen kori	50	50
	Phyông san	50	200 (?)
30	Ka won tan	40	40
	So heung	40	1000
Oct. 1	Keum shu	30	100
	Fong san	40	400
2	Hwang ju	40	3000
	Chung hwa	50	700
3	Phyông yang	50	6500
6	Sun an	50	150 (?)
7	Suk chôn	60	400
	An ju	60	3000
8	Pak chôn	30	1000
	Ka san	20	400
9	Chung ju	60	600
	Kwak san	30	300
10	Sôn chôn	50	600
	Chihoi san	45	300 (?)
	Ma wei yuan (Chinese name)	50	80 (?)
	Wi ju	60	5000 (?)
14	Yen bong	50	30 (?)
	Chông sông	30	80 (?)

APPENDIX

ITINERARY OF ROUTE—Continued.

Date.	Name of Place.	Distance.	Number of Houses.
1884		Li.	
Oct. 15	Phal mang wôn	40	40
	Chhang sông	40	300
16	Chang ju	40	130
	Pyok dan	40	200 (?)
17	Pyok dong	50	400
	Ping chhang	20	40 (?)
	Wu mien chhang	50	100 (?)
18	Teuk chhang	50	30
	Chih san	30	600
19	Sia a tjan	40	15
	Wi wôn	50	190
20	Tung shang	40	25
	Hat tje tjang	30	60 (?)
	Ko ha pang	70	20 (?)
21	Kang ge	40	1000
	Morai pou ri	40	15
	A te kai	30	7
24	Tsao tek tai	80	30
25	Chang jin	40	150
	Teuk sil tung	55	40 (?)
26	Tjen ô su	20	20
	Ku tjen	20	50
27	Sa seu	40	50
	Kot te su	40	40
28	Chung syong	35	15
	Wong hon i	25	53
29	Ku tjang	35	50
	Ham heung	40	3000
30	Chông phyông	50	500
	Ko san	35	100
	Yang heung	40	1000
31	Ko wôn	40	300 (?)
	So rai wôn	20	30
Nov. 1	Mun chôn	30	(?)
	Ti kyeng	15	30
	Gensan	35	300 foreigners' houses
3	Nam san	50	80 (?)
	Ko san	50	80 (?)

그림 1. Carles(1888)의 한반도 답사기록과 장소별 호구수

구분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남부 지역이 주요한 농업지역이고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지만, 반대로 북부 지역은 아직 경작할 수 있는 미개척의 토지가 많이 남아 있기에 이 지역으로 향후 인구가동이 일어날 것을 짐작하기도 하였다. Curzon은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아직 미경작의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서술하였고, Griffis의 경우에는, ‘조선은 450만 에이커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체 면적의 약 8.5%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경작이 가능한 땅이 삼을 기다리고 있다. 경작이 가능한 조선의 토지로부터 6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쉽사리 그 생활 터전을 찾을 수 있고, 거의 1,000만 달러의 곡물을 증산할 수 있다.’로 서술하였는데, 그가 같은 책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쌀의 주요 재배지역, 비옥한 토질이 분포한 지역 등으로 지목하였기에, 서술 행간의 의미는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향후 인구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견해는 『KOPEU』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189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구가 조밀한 지역은 수도가 있는 경기도로서, ..., 경기도 다음으로 인구가 조밀한 곳은 한국의 남동부, 즉 경상남북도인데, ...,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곳

은 북쪽이다. 평안북도에는 1가구당 4명, 함경남북도에는 1가구당 6명이나 살고 있다. 반면 한국 전체로 보면 1가구당 평균 인구수는 3명 밖에 되지 않는다.’로 서술하였다. 또 농업에 관해서 서술하면서, ‘한국에 있어서 경작되지 않은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베벨, 알리프탄 등의 진술이 한반도의 모든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루벤쵸프의 견해에 의하면 북부에는 오히려 경작되지 않은 땅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서술하였다.

한편 한반도 남부에서 북부 지역으로 인구가동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Lautensach이다. 그는 이훈구가 제시한 조선 초기부터 1904년까지 8도별 인구분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1700년대 중반 무렵부터 남부에서 북부지역으로 실제 인구가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저자(이훈구)가 계산한 8도의 인구율에서 알 수 있듯이, 226년(1678~1904) 동안 지역 간의 변화 상태가 나타난다. 애초에 인구증가분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던 삼남지방에서 이미 1753년에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 인구감소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두 개의 북부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는 미약하게만 나타났고, 함경도는 오히려 1852년과 1904년 사이

표 3. 이훈구의 연구 중 조선 인구 성장표

지역		1404년	1648년	1678년	1717년	1753년	1807년	1852년	1904년
경기도	호구	20,729	36,109	143,268	155,024	192,189	209,958	203,673	213,154
	인구	38,138	176,813	721,538	751,992	816,215	884,513	876,653	864,976
충청도	호구	19,561	67,624	189,339	212,165	235,432	224,607	222,933	201,247
	인구	44,476	174,052	714,204	846,100	931,170	892,747	880,549	774,657
경상도	호구	48,991	115,125	369,175	473,595	392,297	365,053	355,173	293,409
	인구	98,915	424,572	1,005,328	2,165,736	1,662,253	1,607,044	1,535,810	1,111,130
전라도	호구	15,703	122,659	256,158	285,024	326,924	330,990	272,567	235,145
	인구	39,151	431,873	1,000,004	1,101,641	1,192,950	1,251,069	1,068,171	930,955
황해도	호구	14,170	24,687	105,468	116,449	139,587	136,046	120,084	95,466
	인구	29,401	54,927	458,080	410,464	540,349	582,930	672,603	382,230
강원도	호구	15,879	10,660	56,303	64,190	90,814	82,321	79,961	82,154
	인구	29,283	54,003	270,517	277,881	396,140	336,122	324,480	31,885
함경도	호구	11,311	24,530	71,928	86,365	98,443	124,424	117,338	103,858
	인구	28,693	69,348	373,626	529,414	497,446	706,012	691,655	750,008
평안도	호구	27,788	39,927	150,689	167,749	297,603	302,005	217,141	194,866
	인구	52,872	145,813	706,675	763,340	1,267,709	1,305,969	868,906	819,287
전국	호구	174,132	441,321	1,342,428	1,560,561	1,773,289	1,775,404	1,588,870	1,420,299
	인구	360,929	1,531,401	5,246,972	6,846,568	7,304,232	7,566,406	6,918,826	5,665,128

출처: Lee, H. K., 1936,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40.

에 다시 급증한 곳이다. 그러므로 인구의 중력(Bevölkerungsgewicht)이 점차 남에서 북으로 이동한 것이다. 1678년에 총인구의 52%가 거주하던 삼남 지방은 1904년에 와서 47%로 감소한 반면, 두 개의 북부 지방에서는 21%에서 26%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북부 지방은 지속적으로 개척지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 제시하였다. 이것은 O-D와 같은 직접적인 인구이동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분포의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인구이동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5. 인구를 통해 살펴본 서구인들의 인식

조선 후기, 개화 그리고 대한제국까지 한반도 인구를 기록했던 서구인들은 단순한 수치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에 걸쳐 그들이 조선을 바라보던 시각, 즉 판단, 의견, 주장 등을 함께 제시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한반도 혹은 조선에 대한 인식은, 비록 그들 모두가 일치한 판단은

아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특히 조선의 전근대성(前近代性), 봉건성(封建性)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1) 인구자료에 대한 불신과 편견

앞의 제3, 4장에서 살펴본 한반도 전체의 인구수와 지역별 인구분포에 관한 서구인들의 기록은 그들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호구조사에 근거한 것들이다. 물론 1896년 호구조사규칙 제정을 기준으로 구식과 신식 호적자료에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를 인용한 서구인들은 공통적으로 그 신뢰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의심의 배경은 당시 조선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이었다.

Oppert는 '이 통계는 신빙성이 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납세자를 근거로 해서 주민의 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이 실제의 수를

감추어 조세 부담을 축소하려거나, 지방 관리들이 세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가능한 적게 징세액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관리들은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바쳐 입막음을 하며 인구조사 작성을 담당하는 관리와 결탁한다. ... 더욱이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수백 개의 섬들을 다스리기는 대단히 어려워져 실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와 같은 인구 조사는 결함이 매우 많을 뿐더러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Veblen은 '한국 주민수에 관한 자료가 모순되는 것은 한국인 자신들이 인정하듯이 주민의 상당수가 세금과 부역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 최근의 조사가 실제 인구수와 다르다고 여길 만한 근거는, 산간 벽지에 살고 있는 많은 수의 가난한 주민들의 숫자를 계산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땅을 일굴 기회를 갖지 못한 굶주린 주민들의 대부분은 일꾼이나 광산노동자로 고용되거나 다양한 어업을 위해 해안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이들은 인구조사에서 빠지게 된다.'로 기록하면서 정부의 부패, 무능 그리고 빈곤에 기인한 화전민, 유민 발생 등이 인구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근거였다.

Bishop은 한강 중상류 지역을 답사하면서 '한 마을에 70가구, 그리고 1가구당 8명 정도 있었다'라는 직접 조사를 통해서 '조선의 한 가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부모님과 과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식객과 같은 친척이 살고 있다.'라고 적었다. 당시 조선 정부의 호구조사에 따르면 3명 남짓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로 계산됨을 감안하면, 그 내용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러시아의 『КОРЕИ』에서는 구식과 신식 호구조사의 신뢰도를 모두 부정하였다. '옛날부터 정해진 법령에 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재정적 목적을 위하여 보통 3년마다 그 도의 주민들의 수효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각 도의 관찰사들이 관장하여 서울에 있는 탁지부로 보고된다. ... 지방행정이 자신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보다 훨씬 적은 수효를 표시하여 ... 지방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조

작되지 않은 진짜 숫자대로 세금을 받았으므로 나머지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 인구조사의 결과가 부정확한 또 다른 이유는 ... 관리들이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불법적으로 이중삼중으로 부과하였으며, 송사에서 뇌물을 요구하였고 ... 주민들은 인구대장에 등록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관리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점이다.'라고 조선의 전통적인 호구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부정하였다. 1897년의 호구조사에 대해서도 '1897년 인구조사의 결과가 신빙성이 적다는 사실은,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는 1가구당 평균 3명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 곳에서도 나타난다. 이 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에 의하면 1가구당 인구가 5~6명 이상이고, 10명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로 하였다. Seroshevskii는 1897년의 신식 호구조사도 조사의 주체가 여전히 부패한 지방 관리, 즉 '아전'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했는데, '1897년에 정부는 유럽 방식에 따라 전체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작업을 동일한 아전들과 지방권력에 맡겨버린 탓에 사실상 아무 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관리들은 푹푹 몽쳐 예전의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던 것이고, ... 그 인구수는 300년 전 기록된 인구수보다도 무려 1/3이나 감소된 수치이다.'라며 불신했다. 나아가 '그런 체계 속에서 통계상의 주민수가 아예 다 사라져버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로 관리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동양 문화에 대한 일종의 편견도 존재하는 듯하다. Gale의 서술을 살펴보면, '... 사람 수를 기술하면서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양의 모습을 다듬어 내는 데에는 한 세대나 두 세대가 걸릴 것이다. 그래야만 숫자를 다루면서 정확도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800명이 모였을 때 흔히 수천 명이 모인 것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15명도 수십 명을 의미한다. 나의 오랜 친구인 김씨는 흔히 우리 2천만 동포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이에 대해 나는 2천만이라고 믿지 않고, 1천 5백만도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인구조사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씨는 인구조사 통계라구요? 여보세요, 우

리가 동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2천만 동포라고 부르지요.’라는 그가 겪은 경험을 서술하는데, 동양인의 숫자에 관한 부정확성 혹은 과장을 암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족한 정보와 지식에 기초한 오해, 예를 들면 지한파로 알려진 Underwood는 조선에는 지난 3백년 동안 단 한차례 밖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서술, 조선의 인구조사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구 단위만 조사된다는 Ross의 서술 등이 이러한 예이다.

2) 기근, 전염병, 영아사망률 등 전근대적 인구변천 단계에 대한 서술

Griffis는 만성적인 빈곤과 널리 퍼져있는 질병들 그리고 낮은 의료 수준으로 한반도의 인구증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제시했고, Curson은 전쟁, 기근과 피임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에서 3~4년마다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인한 높은 영아사망률을 당시 한반도의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Underwood는 한반도는 출산율이 매우 높지만, 같은 수준의 사망률이 나타난다고 서술하여 전형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성을 제시하고, 높은 사망률의 이유들로 몇 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콜레라와 매년 반복되는 발진티푸스 등의 전염병, 비위생, 낮은 의학 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특히 높은 영아사망률에 대해서 ‘출산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런데 산모가 사망했을 때, 수유를 대신할 우유나 이유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신생아 또한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아쉬움을 적고 있다.

다수의 서구인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근,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 등을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1886년 콜레라에 따른 극심한 피해에 대해서 다수 증언들이 확인되는데, Carles는 이 때 콜레라로 인해 ‘서울에서만 두 달 동안 10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했고, 알렌은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콜레라가 7월 무렵 서울까지 확산되었고, 한반도가 콜레라에 취약한 것은 빈약한 영양 상태 그리고 오염된 식수, 지지분한 오물 등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반도의 비위생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종의 시

의(侍醫)였던 독일인 Wunsch는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서울의 길거리 청소는 개들에게 맡겨 놓은 상태다. 곳곳에 널리 분변을 개들이 먹어 치우니, 길의 청결 여부는 개들의 식욕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정부는 위생문제에 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다.’로 서술하였다.

지금의 우리로서 납득하기 힘든 서술도 있다. Savage-Landor는 1가구당 자녀수가 평균 2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고 제시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유전적(hereditary)으로 허약하기 때문인데, 특히 상류층은 방종하고(dissolute), 나약한(effeminate) 삶을 살고 있기에 튼튼한(powerful)한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고, 둘째 여성의 생식기능이 결여된 절대 불임증(absolute sterility)이 흔하고, 남성들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의 특정 부위와 같은 기괴한 약물(drug)과 부적절한 방법들을 남용하고 있다고 상당히 모욕적인 묘사를 하였다.

1800년을 전후로 한 국가 단위에서 근대적 센서스가 시작되었던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인구조사에 대한 불신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아울러 산업혁명 이후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이미 진입한 그들로서는 기근, 전염병 등에 따른 높은 사망률 및 영아사망률이 나타났던 당시 한반도의 인구현상은 우리를 열등, 낙후된 민족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진 듯하다. 물론 인구학 혹은 인구지리학적인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가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망률의 저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근대화로 진입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그러한 단계를 한반도보다 약 100여년 앞서 경험한 서구인의 입장에서 여전히 높은 사망률이 지속되는 우리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점, 즉 전근대와 봉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6. 결론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즉 19세기 중반부터 1909년까지 한반도의 인구와 인구현상을 기록, 분석한 약 20편 이상의 기록물을 찾았다. 해당 기록물들은 그 당시 지리지, 보고서, 여

행기, 풍물지, 일기 등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것들이지만, 한반도의 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것들이다. 물론 이 연구가 찾아내지 못한 상당한 기록들이 분명 남아있다.

둘째, 각 기록물들은 전체 분량 중에서 인구를 서술한 분량과 비중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 대상과 주제에 있어서는 한반도 전체 인구수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았고, 그 밖에서 지역별 인구수, 인구분포, 밀도, 이동, 인구조사 방법과 자료, 사망률 등으로 다양하였다.

셋째, 서구인들은 당시 한반도를 전근대성과 봉건성이 여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800년을 전후 근대적 인구센서스 실시 그리고 인구변천제2단계 진입한 그들의 경험과 시각에서 당시 한반도의 인구자료를 불신하였고, 높은 사망률, 영유아사망률을 세밀히 묘사하였고, 아울러 그 원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부적절한 주장과 판단까지 제시하였다. 따라서 당시 서구인들이 한반도의 인구 기록과 현상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듯이, 지금 한반도 위에 있는 우리도 그들이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면밀한 검토하고 확인,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연구가 수행하지 못했던 부분으로서, 한계이자 앞으로의 과제이다.

한 국가의 인구성장, 인구변천, 인구이동 단계 등 시간적으로 긴 호흡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인구 지리학적 연구의 특성에서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지리학 분야의 충분하고 가치 있는 연구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전통의 호구자료와 근현대적 인구자료를 연결시켜 지금의 우리 인구현상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혀왔다. 이 연구가 고찰한 서구인들, 즉 타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당시 한반도 인구 기록과 서술들은 만약 그간의 성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소나마 이를 채우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주

1) 기록자들의 생애는 해당 기록물을 우리말로 번역한 역주자의 서술과 김학준(2009a,b,c), 김일권 외(2014) 등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문헌

김일권·최석영·정승교, 2014, 한국 근현대 100년과 민속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정화 역, 1994, 러시아 첩보장교 대한제국에 오다, 가야미디어(Vebel, 1889, *Poezdka v Koreiu v 1889*)

김종규·강경원·손명철 역, 2014, 코리아; 일제 강점기의 한국지리, 푸른길(Lautensach, H., 1945, *Korea*).

김종대 역, 1999,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취, 학교재.

김진영 외, 2006, 코리아 1903년 가을, 개마고원 (Seroshevskii, B., 1909, *Корея*).

김학준, 2009a,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 (제1회); 개항 이전 시기, 한국정치연구, 18(1), 259-320.

김학준, 2009b,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 (제2회); 개항부터 청일전쟁 발발 직전까지, 한국정치연구, 18(2), 247-314.

김학준, 2009c,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 (제3회); 청일전쟁 발발 직전으로부터 조선의 망국까지의 시기, 한국정치연구, 18(3), 227-294.

신복룡 역주, 1999a,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Hulbert, H. B., 1906, *The passing of Korea*, Doubleday, Page & Co., New York).

신복룡 역주, 1999b,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Griffis, W. E., 1882, *Corea: The Hermit Nation*, Charles Scribner's Son, New York).

신복룡 역주, 1999c,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Gale, J. S., 1909, *Korea in Transition*, Jenning & Graham, Cincinnati).

신복룡 역주, 2000,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Bishop, I. B., 1897, *Korea and Her Neighbors*, Fleming H. Revell Co, New York).

신복룡·장우영 역주, 2000, 금단의 나라 조선, 집문당(Oppert, E. J., 1880, *A Forbidden Land: Voyages to the Corea*, G. P. Putnam's Sons, New York).

안응렬·최석우 역주, 1980, 한국천주교회사(상), 분도출판사(Dallet, C., 1874,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V. Palmé, Paris).

- 정치영, 2011, 인구의 역사지리, 한국역사지리, 푸른길, pp.337-380.
- 조행복 역, 2008, 백두산으로 가는 길: 영국군 장교의 백두산 등정기, 살림(Cavendish, A. E. J., 1894,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G. Philip & son, London).
- 최재성, 2013, 숫자조선연구의 체재와 내용 분석, 사림 44, 205-24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국역 한국지.
- 한주성, 2015, 인구지리학, 한울, 서울.
- Allen, H. N., 1889, *Korean Tales; 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lore*, G.P. Putnam's Sons, New York & London.
- Carles, W. R., 1888, *Life in Corea*, Macmillan and Co, London and New York.
- Gilmore, G. W., 1892, *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s*,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Philadelphia.
- Lee, H. K., 1936,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well, P., 1886,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icknor and company, Boston.
- Ross, J., 1891, *History of Corea: Ancient and Modern*, Elliot Stock, London.
- Savage-Landor, A. H., 1895,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William heinmann, London.
- Underwood, H. G., 1908, *The Call of Korea*, Fleming H. Revell Co.
<https://archive.org>
- 교신 : 이정섭,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yisup@gnu.ac.kr, 전화: 055-772-2186)
- Correspondence : Lee, Chung Sup,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E-mail: yisup@gnu.ac.kr, phone: +82-55-772-2186)
- (접수: 2016.11.10, 수정: 2016.11.22, 채택: 2016.11.25)